

혼자서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수험생을 위한 강의

박광일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

[현대산문] EBS 연계 학습을 단시간에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 강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EBS 연계 문학 강의 [바로 보기]



EBS 연계 문학 작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수험생에게



훈련도감-E 수특정복 현대산문이 답인 이유!

1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 완성

EBS 연계 교재의 출제 요소와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핵심 출제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작품 해설과,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랜을 통해 이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EBS 연계 교재의
모든 작품 분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모든 현대산문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최신 수능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해석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작품의 내용과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과 함께하면 **좋은 점**



첫째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학습 가능

EBS 연계 작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해 박광일 선생님이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문학 전 작품 강의를 제공합니다.

둘째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심도 있게, 출제 가능성이 낮은 작품은 핵심만 짚어 강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강의를 따라오면 어느새 EBS 연계 학습 완료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 강의를 통해 작품별 학습 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EBS 학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포인트를 도식화하여
학습 효율성 극대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전에서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출제 요소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

**EBS 연계 작품과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와 해설 수록**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수록했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 원리를 익히고 실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언제나 열려 있는 Q&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이투스(<https://www.etoos.com>)
박광일 선생님의 Q&A 게시판을
활용해 보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공부를 도와드립니다.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 2026 수능 P.010
- 2026 9평 P.012
- 2026 6평 P.014

- 01 문순태, 징 소리 P.018
- 02 현진건, 고향 P.027
- 03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P.034
- 04 강경애, 인간 문제 P.051
- 05 채만식, 치숙 P.058
- 06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P.065
- 07 박경리, 불신 시대 P.074
- 08 이병주, 관부 연락선 P.080
- 09 박완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P.087
- 10 이문구, 해변 P.095
- 11 김원일, 미망 P.103
- 12 임철우, 눈이 오면 P.111
- 13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P.123
- 14 공선옥, 한데서 올라 P.133
- 15 홍성원, 남도 기행 P.141
- 16 최일남, 너무 큰 나무 P.148
- 17 이기영, 고향 P.156
- 18 김민정, 길삼봉던 P.167
- 19 황순원 원작, 이상현 각색, 카인의 후예 P.174
- 20 차범석, 불모지 P.181
- 21 윤대성, 노비 문서 P.191
- 22 김동리 원작, 최금동 · 김강윤 각색, 역마 P.199
- 23 류장하, 꽃 피는 봄이 오면 P.212
- 24 이창동, 시 P.220
- 25 이상, 산촌 여정 P.228
- 26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P.236
- 27 김용준, 선부 자화상 P.240
- 28 정호승, 뿌리가 꽃이다 P.244
- 29 김인숙, 길의 안내자들 P.248

DAY	날짜	작품	학습 CHECK
1	/	INTRO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input type="checkbox"/>
2	/	01 문순태, 「징 소리」 02 현진건, 「고향」	<input type="checkbox"/>
3	/	03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04 강경애, 「인간 문제」	<input type="checkbox"/>
4	/	05 채만식, 「치숙」 06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input type="checkbox"/>
5	/	07 박경리, 「불신 시대」 08 이병주, 「관부 연락선」 09 박완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input type="checkbox"/>
6	/	10 이문구, 「해벽」 11 김원일, 「미망」	<input type="checkbox"/>
7	/	12 임철우, 「눈이 오면」 13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input type="checkbox"/>
8	/	14 공선옥, 「한데서 울다」 15 홍성원, 「남도 기행」	<input type="checkbox"/>
9	/	16 최일남, 「너무 큰 나무」 17 이기영, 「고향」	<input type="checkbox"/>
10	/	18 김민정, 「길삼봉면」 19 황순원 원작, 이상현 각색, 「카인의 후예」	<input type="checkbox"/>
11	/	20 차범석, 「불모지」 21 윤대성, 「노비 문서」	<input type="checkbox"/>
12	/	22 김동리 원작, 최금동 · 김강윤 각색, 「역마」 23 류장하, 「꽃 피는 봄이 오면」 24 이창동, 「시」	<input type="checkbox"/>
13	/	25 이상, 「산촌 여정」 26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input type="checkbox"/>
14	/	27 김용준, 「선부 자화상」 28 정호승, 「뿌리가 꽃이다」 29 김인숙, 「길의 안내자들」	<input type="checkbox"/>



INTRO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최근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현대산문은 모두 EBS 연계 작품이 출제되지 않았어. 대신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 개념을 선지에서 활용하는 방식의 간접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연계 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장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전체 줄거리를 통해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과 인물 간의 관계도 대략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 먼저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지문과 문항들을 살펴보고 학습 방향을 잡아 보자.

2026 수능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해설 P.254

“8·15 이후의 비극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가운데 그 마을과 동네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그럴까요? 적어도 이 독가촌에 서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이 사는가 보았다.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 나는 무식하고 먹고살기에 바빠서. 도무지 그런 얘기라는 것이…… 글썄요.”

허명두 씨는 하품을 하였다.

“실례지만 선생께서는 8·15 직후에 무슨 청년당 일에……?”

온 씨의 어조가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면 허명두 씨는 욕설을 퍼부어 네가 무슨 사찰 요원이냐고 따질 뻔하였다. 하지만 허명두 씨는 오랜만에 중오가 되살아나서 온 씨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8·15 직후라? 그때 참 별의별 못난 것들이 제 세상 만났다고 착각하며 날뛰었지요.”

“역시 그러셨구만.”

“왜? 나를 본 적이라도?”

[A]

“많이 보았지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이봐요. 허 선생. 더 이상 서툰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 그런데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요. 우리의 피땀으로 이룩한 독가촌을 가지고 서툰 짓을 벌이려고 하다가는 당신이 온전치는 못할 거요.”

“나한테 헐박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헐박은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보라지.”

허명두 씨는 중오를 억누르며 말했는데 온 씨도 거연히 일어났다.

“내가 한 말 명심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온 씨는 가 버렸는데, 독가촌 일대에는 금방 그 소문이 돌 대로 돌았다.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허명두 씨로서는 마지막 안간힘을 내어 그가 일으켜 보려는 이번 싸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온 씨의 말이 단순한 헐박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명분이나 사리의 옳음이란 것이 싸움에 무슨 필요가 있던 말인가.

이러한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심심산골, 불모의 황무지였던 이곳 독가촌

일대가 하루아침에 각광을 받는 지대로 둔갑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특히 독가촌은 오늘의 달라진 인문지리의 환경으로 따져 보았을 적에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게 될 교통요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허명두는 온 씨와의 언쟁 전에 있었던, 외부 기업 측으로부터 독가촌의 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일을 회상한다.

행정 당국은 지목(地目) 변경은 해 두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모든 가옥들이 무허가 주택이나 다름없었으며, 따라서 집들의 매매는 권리금에 다름이 아니었다. 물론 불하를 내게 될 적에는 이미 지어진 집 임자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게 될 터이었다. 허명두 씨가 관청을 들락거리고 야금야금 집들을 사두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온 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만, 온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전국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이곳 독가촌에 정착하여 그러저럭 안정을 얻을 만하게 된 이즈음 이곳이 외부의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돼 버린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어느 곳으로 찾아들어 가 얼마만큼 방향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두메산골이었던 곳을 피땀 흘려 오늘의 독가촌으로 개척해 온 이곳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농촌 부락으로서의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터전도 굳혀 놓은 게 사실이었다. 온 씨의 주장은 옳은 것이었다. 허명두 씨의 입장에서 그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피땀 흘려 가꾼 땅이 도시의 온갖 잡것들이 논다니를 치는 관광지로 되려는 것을 어찌 귀농 개척자들이 가만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런 사리만을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놓고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를 따져 보면서 허명두 씨는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대한청년단 시절의 일하며 화랑동지회의 체험들을 그가 요 근래 부쩍 회상해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오는 측이 항상 이겨 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온 씨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하였던 말을 그가 곰곰 생각해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그는 물론 실감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문제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데 있었다.

- 박태순, 「독가촌 풍경」 -

1.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온 씨와 허명두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 ② 허명두는 온 씨의 발언에 불쾌해하며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 ③ 온 씨는 허명두와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하였다.
- ④ 온 씨는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을 반복하며 허명두에게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다.
- ⑤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허명두는 예들려 말하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2.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형성된 과정은 ㉡가 주변에 전해진 것과 무관하다.
- ② ㉠가 처음 퍼진 시점은 ㉡가 처음 퍼진 시점보다 앞선다.
- ③ ㉠는 ㉡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④ ㉠가 주변에 빠르게 확산된 것은 ㉡가 거짓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에는 ㉠를 처음 퍼뜨린 인물이 ㉡와 관련하여 찾아가 만난 인물에게 확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3. '독가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속도로가 연결될 것이 알려진 후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곳이다.
- ② 허명두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아서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곳이다.
- ③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왔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곳이다.
- ④ 온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양식을 바꾸려 하는 곳이다.
- ⑤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곳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윗글에서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하여 그의 내면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허명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주관화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인물의 생각을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어, 서술의 이면에 그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함께 있음을 보여 준다.

- ① ㉠: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상대와의 인식 차이가 좁힐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어,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② ㉡: 마을의 상황을 '싸움'으로 주관화함으로써 상대가 추구하는 '사리의 옳음'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 유용하지 않음을 드러내어,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③ ㉢: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는 달리 보아, 인물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 ④ ㉣: '실리'를 추구한 측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도 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리화하여,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⑤ ㉤: '그것'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주관화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선택을 고수하여, 인물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현대산문

KEYWORD #징 소리의 의미 #실향민의 아픔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 #초점화자

작품 간추려 읽기

0409모평

【칠복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징을 친다. 사람들은 춤을 추며 징을 치는 칠복을 보고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 하며, 이는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 수군거린다. 칠복은 여섯 살 난 딸아이를 업고 나타나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위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가 하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 가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중얼거리다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찢어 보고, 큰 소리로 웃어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도깨비춤을 추기도 한다.】

• 칠복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수몰된 고향으로 돌아와 춤을 추며 징을 친

댐을 막은 뒤로부터 마을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온다. 칠복이 징을 치며 낚시를 휘방 놓자 낚시꾼들은 칠복을 작대기로 후려치고 엉덩이를 걷어차지만, 그래도 여전히 칠복은 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을 도사린다. 방울재 사람들은 댐이 생기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자 낚시터 주변 호숫가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낚시꾼이나 댐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살아간다. 낚시꾼들이 징을 치는 칠복 때문에 낚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칠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 칠복의 징 소리 때문에 낚시꾼들이 방해를 받음

방울재에서 칠복과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던 봉구는 주막으로 끌려 내려가는 칠복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낚시꾼 가운데 한 사람이 칠복이 미쳐버린 이유에 대해 묻자, 봉구는 함께 도회지로 나갔던 아내가 바람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준다. 이어 봉구는 매운탕집 주막을 서글프게 바라본다. 방울재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기는 했지만, 보상 가격이 책정된 뒤 1~2년이나 지나 서야 돈을 받는 바람에 이미 오른 인근 땅값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도회지에서 살아가기도 어려웠다. 결국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빈곤에 내몰렸으며, 봉구 역시 쌀집을 냈다가 가까스로 전셋돈만 건져 다시 방울재로 돌아오게 되었다.

• 칠복이 미치게 된 사연과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방울재 사람들의 사연

밤이 되자 호수는 음산한 그림자들이 일렁이는 듯 보였고, 칠복은 그것을 마치 방울재 사람들의 그림자처럼 여긴다. 물에 잠겨 버린 방울재를 회상하던 칠복은 춥다고 칭얼거리는 딸아이에게 호수를 가리키며 저 물속에 우리 집이 있다고 말한다. 이어 딸아이가 울자, 칠복은 아내 순덕을 떠올린다.

• 칠복이 호수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함

결혼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순덕은 칠복에게 도회지로 나가 살자고 한다. 한 번도 방울재 밖에서 살아본 적 없는 칠복은 순덕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전답도 없이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살겠느냐는 순덕의 말에 칠복은 십 년 안에 방울재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더욱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해 방울재가 수몰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칠복 내외는 문서 없는 전답에 대해서는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광주 산동네 꼭대기의 작은 사글셋방으로 옮겨 가게 된다. 순덕은 광주로 간 지 사흘 만에 큰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 날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 통금 시간이 가까워져서 돌아온다. 칠복도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만 농사일 외에는 기술이 없어 막일을 전전할 뿐이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는 그 일들마저도 끊기게 된다. 결국 칠복은 아내가 벌여 온 돈으로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한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순덕은 날이 갈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화장을 하며 미장원을 드나든다.

• 도시 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는 칠복과 달리 도시 생활을 즐기는 순덕

봄이 오자 칠복은 고향인 장성으로 돌아가 수몰되지 않은 가까운 마을에서 모내기를 해 주며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칠복은 장성댐 아랫마을에서 모내기 한철 농사일을 한 뒤, 다시 여름에는 장성읍 과수원에서 일을 해 이십만 원을 손에 쥔 채 광주로 돌아온다. 칠복은 순덕을 설득해 다시 시골로 돌아갈 생각으로,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광주로 가기 위해 마지막 밥버스를 탄다. 집에 돌아와 전기 스위치를 켜 순간, 칠복은 아내와 외간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칠복은 곧장 부엌으로 가 식칼을 들고 오지만 이미 그들은 달아나 보이지 않고, 칠복은 식칼을 든 채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힌다. 다음 날 산동네에 돌아와 보니 딸아이만 집 밖에서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고, 그날부터 칠복은 딸아이를 등에 업은 채 아내를 찾아 나선다. 순덕이 일하던 식당에까지 가 보았지만, 순덕의 행방도 함께 달아난 남자의 정체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순덕을 찾아 헤매는 사이 칠복은 힘들게 번 돈은 물론 사글셋방값까지 모두 써 버리게 되고 마침내 방울재를 떠날 때 가져온 징만이 그의 유일한 재산으로 남는다. **㉔ 장면 풀어 읽기 ①** 과거를 회상한 칠복은 딸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방울재의 매운탕집들 쪽으로 내려간다.

• 칠복은 바람이 나 도망친 순덕을 떠올림

봉구네 집에는 매운탕집을 하는 방울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칠복을 쫓아내야 한다고 성화를 부린다. 특히 올봄에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방울재로 다시 돌아온 강촌 영감은 당장 칠복을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봉구와 덕질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칠복을 떠올리며 선뜻 강촌 영감의 의견에 찬성하지 못한다. 그때 칠복이 딸아이를 등에 업고 봉구네 술청 안으로 들어와 딸아이 밥을 좀 달라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0409모평** 【강촌 영감은 그런 칠복에게 당장 오늘 밤 마을을 떠나라고 한다. 칠복은 강촌 영감에게 갈 곳이 없다며, 앞으로는 낚시꾼들에게 휘방을 놓지 않을 테니 마을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이미 마을을 굳힌 방울재 사람들은 끝내 광주로 가는 버스에 칠복과 딸아이를 태워 보낸다. 떠나기 싫다며 버티는 칠복을 억지로 버스에 태워 보낸 사람들은 그날 밤 칠복이 치던 징 소리와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된다. **㉔ 장면 풀어 읽기 ②**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마치 쫓겨난 칠복이 우는 소리 같다고 느끼며,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 칠복을 쫓아낸 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들려오는 징 소리에 두려움을 느낌

아내를 찾아다니느라고 시골에서 벌어 온 돈마저 모두 깨 먹어 버리고, 얼마 안 남은 산동네 사글셋방* 값마저 찾아 쓴 칠복이는, (칠복은 아내를 찾아다니느라 시골에서 번 돈과 월세마저 모두 써 버림)

α1 방울재에서 나올 때 나눠 가진 굶물인 징 하나만 들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았다.(칠복에게 있어 '징'이 가지는 의미)

α2 칠복이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면서도 방울재에서 가지고 나온 징을 마치 그의 딸아이 만큼이나 애지중지했으며, 밤에 잠을 잘 때는 그 징을 꼭 베고 잤다. 그런데 그 징을 베고 잘 때 마다 이상하게 그 징에서 마치 방울재 할미산 너털경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오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방울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아슴하게 들려오곤 했다.(칠복은 징을 베고 자면서 수몰된 방울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림)

그때마다 방울재에 살던 시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칠복이는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그를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뒤 딸아

이를 업고 꼬박 하루를 걸어 방울재에 닿았다. (초점화자 '칠복'을 통한 전개 방식)

E 장면 돋보기

칠복이 방울재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야. 칠복이 방울재를 떠날 때 가지고 나온 징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지. 칠복이 그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오라고 부르는 듯한 환청을 들은 이후 결국 딸아이를 업고 방울재까지 걸어갔다는 것을 통해 칠복에게 방울재는 단순히 옛 고향이 아니라 쉽게 끊어 낼 수 없는 삶의 근원임을 알 수 있어.

α1 '징'은 곳에 사용되는 물건 중 하나로, 칠복이 방울재에서 나올 때 나눠 가진 물건이자 방울재에 대한 기억이 담긴 물건임

α2 초점화자 '칠복'을 통한 전개 방식

칠복은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음



칠복이 딸아이를 업고 방울재로 돌아옴

고향을 그리워하는 칠복의 마음에 주목하게 함

*사글셋방: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방. 또는 월세를 주고 빌려 쓰는 방.

E 미수록 장면 요약 칠복은 수몰된 방울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댐 인근으로 와서 징 울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뉘시꾼들의 불만을 사게 된다. 이에 뉘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살아가게 된 방울재 사람들은 칠복을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하게 된다.

“강촌 영감님, 부탁드립니다. 지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다시는 휘방 치지 않겠구먼유. 이렇게 빌게유.”(징을 울리는 행위로 인해 뉘시꾼들의 불만을 사게 된 칠복은 방울재 사람들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함)
 칠복이는 우르르 강촌 영감에게도 달라붙어 어깨죽지며 팔을 붙들고 애원을 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비대발팔* 빌었다.

이 모습을 본 봉구와 덕칠이, 강촌 영감까지도 목올대에 모닥불이 타오르면서 시울*이 시큰시큰 했다.(칠복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을 사람들)

“안 가겠다면 덕석물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거여!”(강촌 영감은 멍석말이를 해서라도 칠복을 쫓아내고자 함)

강촌 영감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 내며 결연히 말했다.

“봉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말어.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이보게덜 내 사정 좀 봐 줘!”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덥석 껴안으며 통사정(딱하고 안타까운 행편을 털어놓고 말함)을 했으나, 방울재 친구들은 도시(아무리 해도) 말이 없었다.(칠복의 애원에도 침묵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방울재 사람들이 모두 칠복을 쫓아내는 데 뜻을 모았음을 알 수 있음)

칠복이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이를 응등물고 참아 냈다. 강촌 영감의 말마따나 고향이 없어져 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들 남아 있을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방울재는 이미 물에 잠겨 사라졌으므로, 예전의 고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재와 방울재의 옛사람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재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E 환각(칠복이 고향에 돌아온 뒤 겪고 있는 현상)**에 정신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거였다.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방울재가 수몰된 후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들)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정월 대보름날 밤 매귀굿*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경중경중 춤을 추고 싶어져 징을 찾아 들고 나서는 거였다.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울재와 낮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 닿게 높아지는 듯싶었다.

“자네 정신 말짱허니께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하여.”

강촌 영감이 불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 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하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겨.”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춰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핑 서둘러 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 E1 칠복이 겪는 환각의 의미

- ① 타향을 떠돌던 칠복이 고향에 돌아오면서 겪게 된 현상
- ② 방울재의 모습을 현재 상태와 다르게 지각하는 칠복의 정신 상태를 보여 줌
- ③ 칠복이 징을 들고 춤을 추게 되는 이유
- ④ 방울재 사람들과의 유대에 대한 칠복의 그리움이 투영됨

*비대발팔: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 하면서 간절히 청하여 빌.

*시울: 약간 굽거나 흰 부분의 가장자리. 흔히 눈이나 입의 언저리에 씀

*매귀굿: 주로 농촌에서 하는 민속 행사의 하나. 음력 정월 초승에 풍물패가 풍물을 치면서 마을을 돈 다음 집집마다 들어가 악귀를 쫓고 복을 빈다.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E2}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캄캄캄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칠복에 대한 봉구의 동정심 ①)**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α3}이따금씩 고속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쭈셔 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섬찟했다. **(아울 주민들의 심리-괴로움)**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으으로 들어가는 헌털뱅이(**‘헌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 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E2}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에 대한 봉구의 동정심 ②)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드득후드득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어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 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 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 내고 삐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짹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쭈석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몹시 지쳐서 기운이 없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별쭈별쭈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α3}땅껍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 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바가 오는 배경과 징 소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봉구의 죄책감을 드러냄)** 어쩌면 바람 소리라도 같은 그 징 소리는 바로 뒤란(**집 뒤 울타리의 안**)의 아가시아 숲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어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 소린지, 징 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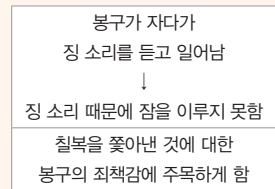
E 장면 돋보기

작품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방울재 사람들이 칠복을 쫓아내는 장면이야.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칠복을 마을에서 쫓아낸 봉구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징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통해 징 소리가 지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 결국 징 소리는 비인간적이고 물질 중심적으로 변해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무너진 농촌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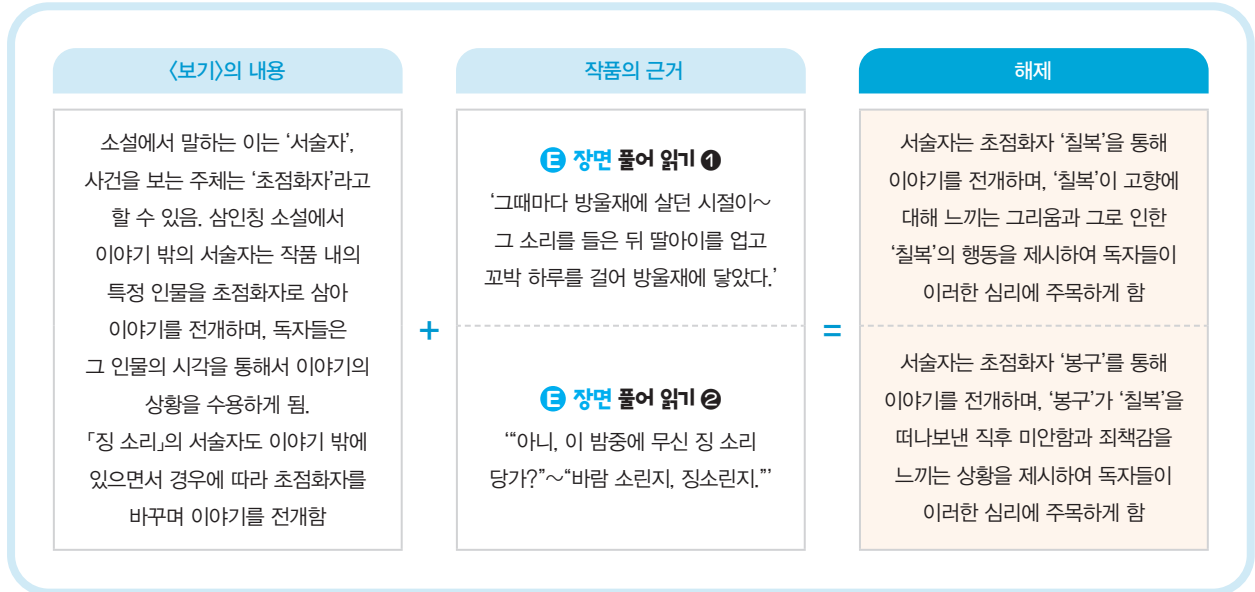
• **E2** 칠복을 내쫓으면서도 칠복의 딸아이가 기침을 하자 자신의 잠바를 벗어 덮어 주고, 칠복이 탈 버스가 도착하자 천 원짜리 두 장을 주며 그를 배웅하는 봉구의 모습에서 칠복 부녀를 향한 동정심이 드러남

• **α3** 칠복을 마을에서 내쫓으면서도 괴로워하는 방울재 사람들의 심리를 배경 묘사를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냄

• **α4** 초점화자 ‘봉구’를 통한 전개 방식



*땅껍질: 땅바닥의 겉 부분이 말라 굳어서 생긴 껍질.



작품 파고들기

• '징 소리'의 메시지와 기능

「징 소리」는 한국 농촌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규모 댐 건설로 생겨난 수몰 지역 실항민들의 아픔을 담아낸 소설이다. 소설의 첫 부분에서 징 소리는 고향과 아내를 잃은 칠복의 한풀이가 낚시꾼을 향한 적대적 소통의 형태로 드러난 것으로, 하늘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토해 내는 울부짖음처럼 청자에게 강하고 위협적인 자극으로 작용한다. 반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징 소리는 고향에서 쫓겨나는 칠복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연민이 교차하는 대칭적 소통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송신자인 칠복의 분노와 슬픔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청자인 방울재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연민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기능하여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 '방울재'의 공간적 의미

문순태에게 공간은 인물의 성격, 사상, 정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그 인물들이 그곳에서 체험한 역사를 통해 삶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과 그 결과까지 드러내는 장소이다. 「징 소리」의 방울재 또한 해마다 공동 제사를 지내 온 현실적인 고향으로 제시되는 한편, 수몰 이후에는 실항민들이 늘 꿈속에서 찾아가고 싶어 하는 곳이자 삶에 지칠 때 희망과 살아갈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영원한 안식처라는 추상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즉, 방울재는 수몰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반복적으로 되살아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작품 마무리

▶ 주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소외된 농촌 사람들의 고달픈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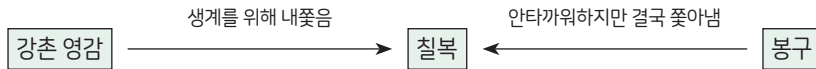
▶ 서술상의 특징

- 초점화자의 교체 **근거** '칠복이는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꼬박 하루를 걸어 방울재에 닿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 소리당가?"~"바람 소린지, 징 소린지."
- 배경 묘사를 통한 심리 부각 **근거**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찝섬찝했다.', '땅껍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등
- 방언의 활용 **근거** '강촌 영감님, 부탁입니다유.', '안 가겠다면 덕석몰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꺼여!',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히여.' 등

▶ 주요 인물

칠복	수몰된 고향 방울재로 돌아와 징을 치며, 아내를 잃은 원한과 고향을 잃은 설움을 표출함
강촌 영감	칠복 때문에 뉘시꾼들이 마을을 떠나자 생계를 지키기 위해 칠복을 마을에서 내쫓고자 함
봉구	고향이 사라진 현실과 미처 버린 칠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며 살아감

▶ EBS 인물 관계도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쳐서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땀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낚시꾼들을 쫓아 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 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아이를 업고 불쑥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위에 덩달같이 앉아서, 목이 터져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대는가 하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 가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도, 불쑥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찢어 보고,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 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경중경중 도깨비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성질이 염병을 알아 귀머거리가 된 사람처럼 물렁해지고, 바보처럼 느물느물해진 거였다. 황소같이 힘이 세고 성깔이 왁살스럽던 그는, 도깨비 춤추듯 징을 두들다가도 방울재 사람들이 쫓아와서 한마디만 질러 대도 슬그머니 징채를 감추고 목을 움츠리는 거였다.

(중략)

“자네 정신 말짱히니까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락이니 지금 떠나도록 하여.”

강촌 영감이 볼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널 아침 떠나라 허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겨.”

[A]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취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 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핑 서둘러 나가면 대차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께록께록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잡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 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쭈셔 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찝섬찝했다.

[B]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음으로 들어가 는 헌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겉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슴푸레하게 들려 오는 징 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 소리당가?”

그는 마른 기침을 토해 내고 빼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꽂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쭈석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쭈벌쭈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톱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겉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 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 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 소리와의 같은 그 징 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카시아 숲계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아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 소린지, 징 소린지.”

봉구는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담배를 찾아 성냥불을 붙였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인가 누웠다 앉았다 하며 담배만 피웠다. 자꾸만 귓바퀴를 후벼 파고 들려 오는 징 소리가 오목가슴 깊숙이에 가지처럼 걸린 때문이었다.

이날 밤, 팔만이도, 덕칠이도, 강촌 영감도 다 같이 방울재 안통 여기저기서 설새없이 들려 오는 징 소리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징 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때로는 상여 소리처럼

슬프게 들렸는데,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방울재 사람들은, 그게 어찌면 그들한테 쫓겨난 칠복이의 우는 소리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했다. 그 생각과 함께 징 소리가 더욱 무서워졌으며 아침을 맞기조차 두려웠다.

- 문순태, 「징 소리」-

1. <보기>의 ㉠~㉣ 중, 서사 전개상 기능이 윗글의 '칠복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힘이 장사였다. 하지만 그가 장성하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생겼다. 예로부터 평민 중에 큰 장사가 나면 나라에 반역을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청년을 관가에 밀고 하였다. ㉣군사들이 몰려왔고, 청년은 순순히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 그날 밤 청년 집 우물에서 한 마리 ㉤백마가 하늘로 올라가며 슬픈 소리로 울었다. 이후 마을의 모든 우물이 말라 버렸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그 원혼을 달래는 재를 지내주자 비로소 물이 다시 고였다. 그 연못을 말샘[馬泉]이라 불렀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2.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 ② 강촌 영감은 칠복이가 빨리 떠나기를 재촉하고 있다.
- ③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④ 강촌 영감은 인정에 이끌리면서도 현실을 따르고 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침묵으로 강촌 영감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3.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인물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감각적인 어휘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을 통해 상황의 암울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명멸하는 불빛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심화된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4. 윗글을 읽고 '징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토론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징 소리에는 칠복이의 한이 담겨 있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뒤 힘들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쫓겨나야 하는 한이지.
- ② 칠복이의 징 소리에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어.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춤추며 징을 치는 모습에서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③ 징 소리의 음색은 깊고 묵직하잖아? 고향이 물에 잠기는 충격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럼에도 꺾을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의 꿈이 나직하게 퍼져 나오는 것 같아.
- ④ 내가 주목한 것은 칠복이가 쫓겨나 버스에 올라타며 하고자 했던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에 들은 징 소리는 칠복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한 것이 아닐까?
- ⑤ 나는 징 소리에는 사회적 울림도 담겨 있다고 봐. 댄이 만들어지고 고향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겪어야만 했던 방울재 사람들의 비극을 알리려는 소리로 들린다는 말이지.

5. 고향에 대한 '칠복이'의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황폐화된 고향을 새로 일구고자 한다.
- ② 과거와 달라진 고향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 ③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고향을 찾으려 한다.
- ④ 변해 버린 고향에 어떻게든 적응해 살려고 한다.
- ⑤ 자신을 버린 고향이지만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



정답과
해설

03

박태원

· 문제 P.04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정답

1. ③ 2. ⑤ 3. ② 4. ④ 5. ③
 6. ④ 7. ④ 8. ③ 9. ④ 10. ④
 11. ⑤ 12. ④ 13. ④ 14. ② 15. ⑤

[1~4] 2010학평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 ③

| 정답 풀이 |

구보는 길을 걷다가 '아홉 살 때에 집안 어른의 눈을 기어 '춘향 전'을 읽'었으나 '집안에서는 그것을 금'하였고 '남몰래 안잠자기에게 문의'하여 '세책집에는 어떤 책이든 있다는 것과, 일 전이면 능히 한 권을 세내 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을 떠올린다. 따라서 안잠자기는 어린 시절의 구보에게 얘기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인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구보는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은 '중문과 안방과의 거리는 제법 큰 소리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공교롭게 활짝 열린 대문 앞을, 때마침 세 명의 여학생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 어머니에게 말할 기회를 빼앗은 세 여학생에게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
- ② '일갓집 대청에 가 주인 아낙네와 마주 앉'은 어머니는 주인 아낙네가 '참, 치마 좋은 거 해 입으셨구먼'이라고 하자 '이거 내 둘째 아이가 해 준 거'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그것이 아들의 훌륭한 자랑거리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는 일갓집 주인 아낙네에게 아들이 벌여 준 돈으로 마련한 치마를 자랑한 것이지, 아들의 직업을 자랑한 것은 아니다.
- ④ '아들(구보)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연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한다.'를 통해 구보가 어머니에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월급쟁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어머니가 구보가 준 '돈을 집어 들고, 애애 웃감 바꾸러 나가자, 아재비가 치마 허라고 돈을 주었다. 네 아재비가...'라고 하면서 '만머느리를 신기하게 놀래어' 줄 때, 만머느리가 구보의 돈으로 자신의 치마를 해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2. ⑤

| 정답 풀이 |

[A]와 [B]에서는 모두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등장하지 않고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A]에서는 '아들은 언제나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은, 그대로 소리 없이 밥을 떠먹고는 나가 버렸다.' 등 어머니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B]에서는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구보는 어머니의 외로워할 때의 표정을 눈앞에 그려 본다.' 등 구보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A]와 [B]는 각각 어머니와 구보라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건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 ① [A]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을 뿐, 어머니가 서술자가 되어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B]의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그렇더라도 대답은 역시 해야만 하였었다고' 등에서 구보의 내적 판단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B]는 구보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것이지, 구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A]와 [B] 모두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여 줄 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A]와 [B]는 모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을 뿐,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3. ②

| 정답 풀이 |

구보가 어머니에게 '치마 두 감의 가격을 묻고, 그리고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한 것은 그가 번 돈이 치마 두 감을 여유롭게 감당할 만큼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짐작한 어머니가 '네 아주머니나 해 주렴.'이라고 하자, 구보는 ㉠(아니예요, 넉넉해요, 갖다 끊으세요.)과 같이 말하며 '돈을 내놓'는다. 이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내색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일 뿐, 가족들에게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구보의 만족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 ① '글을 팔아 몇 푼의 돈을 구'한 구보가 '뭐 잡수시구 싶으신 거 없'냐며 '네 양말이나 사 신'이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오래, 제 고집을 세워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려 한다. 이때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면, 아들이 고집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머니는 만족하였다.)에는 '자식이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드러난다.

- ③ 구보는 어머니에게 치마를 사라며 돈을 내놓지만 어머니는 '밤을 새우기까지' 했음에도 '아들이 번 돈은, 결코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어머니는, 얼마를 주저한다.)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즉 ㉠에는 구보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감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동경엘 건너가 공불 하고 온 내 아들이, 구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에는 '보통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동경엘 건너가 공불 하고 온' 구보가 '구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⑤ ㉢(그의 일 있는 듯싶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추어진다.)에서 구보는 걸음을 멈춘 뒤 '어딜 갈까, 생각'하지만 '마땅히' 갈 곳은 없'어 멈추어 서서 망설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 ④

| 정답 풀이 |

〈보기〉에 따르면 '작가의 자의식이 투영된 인물'인 구보가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자신의 쇠약하고 병든 몸을 언급'하는 것은 '문학에 경도되어 건강과 자신감을 잃은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구보가 '격렬한 두통을 느끼며, 이제 한 걸음도 더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피로를 전신에 깨닫고' '얼마 동안을 망연히 그곳, 한길 위에서 서 있는 것은,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창작을 억압하는 일제 강점기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 ① 구보가 '글을 팔아' 번 돈은 '밤을 새우기까지' 하며 일했음에도 '결코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설가'로서의 구보의 삶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구보는 '창작을 위해 어디, 예하면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할까 생각'하면서도 "모데로노로지오"를 게을리하기 이미 오래'라며 현재의 상태를 함께 돌아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구보가 '소설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구보가 '자신의 쇠약하고 병든 몸을 언급'하는 것은 '문학에 경도되어 건강과 자신감을 잃은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구보는 '쇠약한 것은 그의 신경뿐이 아니며' '이 머리를 가져, 이 몸을 가져, 대체 얼마만 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이고-'라고 자문하는데 이는 삶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구보가 '자신의 쇠약하고 병든 몸을 언급'하는 것은 '문학에 경도되어 건강과 자신감을 잃은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구보가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로 인해 건강이 '소년 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한 것에서, 구보가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경도되어 살아왔으며 이로 인해 건강을 잃었다고 여김을 알 수 있다.

[5~7] 1403학평B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5. ③

| 정답 풀이 |

윗글에서 구보는 길에서 '옛 동무'를 만나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지만 '그만 실례합니다.'라고 말하고 가는 벗으로 인해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이후 구보는 '한 개의 기쁨을 찾아'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만 그곳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경성역'으로 향한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음'을 깨닫고 '삼등 대합실'과 '매점 옆'을 지나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날'게 된다. 따라서 윗글은 공간을 이동하며 구보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윗글은 구보가 '옛 동무'를 만난 뒤 남대문 쪽으로 향하고, 이어 경성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윗글에는 '노파', '시골 신사', '병자'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사건이 그들 각자의 시각에서 서술되는 것은 아니다. 윗글은 구보의 시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다른 인물들은 구보가 관찰하는 대상으로 제시될 뿐이다. 따라서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윗글에서 구보는 '옛 동무'를 만나고, '노파', '중년의 시골 신사', '젊은 아낙네' 등을 관찰하지만,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윗글에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6. ④

| 정답 풀이 |

[A]에서 옛 동무가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의 행색이 '너무나 영락'하고 '너무나 초라'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한 반응일 뿐, 두 사람이 반목(서로서로 시기하고 미워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 ① [A]에서 구보와 옛 동무는 '서로 지나치'고 있으므로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며, [C]에서 옛 동무는 '그만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구보의 앞을 떠나, 저 갈 길을 가버'리므로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진다.

EBS 연계 작품들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



현대시 편



고전시가 편



현대산문 편



고전산문 편

-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강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을 통해 연계 작품을 심도 있고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작품과 관련된 전 기출을 수록하여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만으로도 연계 출제 대비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EBS 연계 공부법이 궁금하다면 '국어는 박광일' 유튜브의 관련 영상을 참고하세요.



숫자로 보는

도서출판 홀수



2014년

도서출판 홀수
설립 연도



340종

도서출판 홀수가
발간한 책 종수



200년↑

도서출판 홀수 직원들이
수능 국어를 연구한
시간의 총합



10년

끊임없는 개정과 개선으로
홀수 기출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여 온 시간



150만 부

도서출판 홀수
교재 누적 판매량



10만 건↑

홀수 기출 제작 시
참고한 수험생들의
Q&A 개수



1억 원↑

홀수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지원한 금액



5,037명

홀수의 후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해진
청소년의 수

정가 25,000원
ISBN 979-11-94350-50-7

